

(유은은 유은 모를 경멸하며, 계속 걸려오는 유은 모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다가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.)

유은: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시키고 돈줬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! 똑바로 얘기해라. 돈 어디서 났는데.

(유은 모): (잠시 뜸들인다) ...합의했다.

유은: 무슨 합의

(유은 모): ... 내 취업사기 당했던거.. 범인 잡았단다.

유은: (잠시 정적) 엄마 진짜 미쳤나? 합의 할만한걸 합의해야지. 아무리 돈 돈 해도 이걸 진짜 너무한거 아이가?

(유은 모): 그럼, 달래가 잡히게생겼는데 우야노

유은: (떨리는 목소리) 뭐

(유은 모): (당황) 유은아, 그러니까,

유은: (탄식) 아,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족 등쳐먹은 년 밑에서 종노릇하고 합의까지 봐줬나? 아주 그 사람이 내 죽이라카은 칼 들고 서울까지 쫓아오겠다 그제?

(유은 모): 유은아 그게 아이고,

유은: (목소리 부들부들 떨린다. 목소리 점점 커지며 울부짖는다.) 엄마는 자존심도 없나? 그 인간이 뭔데.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설설 기는데!!!!

(유은 모): (울먹이며) 우리... 힘들 때... 가장 먼저 기대라했던 사람 아이가...